

## 제주 방언 ‘(-고정) ㅎ다’ · ‘-고프다’ 와 ‘싶다’

문순덕\*

### 목 차

1. 서 론
2. ‘(-고정) ㅎ다’의 통사·의미
3. ‘-고프다’의 통사·의미
4. 결 론

### 1. 서 론

국어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가지는 것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다. 보조용언이란 단어 뜻 그대로 의미와 통사 기능 면에서 본용언의 의미를 도와 주며, 본용언의 뒤에 쓰인다. 보조용언은 주로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 -게, -지, -고’에 후행하며 고유한 의미 기능을 가진 어휘 범주이며 실질 형태소이다.

이 글에서는 중앙어 ‘(-고) 싶다’에 대응되는 제주 방언의 보조용언인 ‘(-고정) ㅎ다’와 ‘-고프다’의 문법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2. ‘(-고정) ㅎ다’의 통사·의미

제주 방언의 보조용언 중에서 ‘(-고정) ㅎ다’는 중앙어 ‘(-고) 싶다’에 대응된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다. 제주 방언에 있는 이 보조용언의 형태가 중양어에는 없으나 중세국어에는 보인다. 따라서 보조용언 ‘(-고정) ㅎ다’의 문법 기능을 살펴보겠다.

- (1) 가. 난 바당이 가고정 ㅎ다. (나는 바다에 가고 싶다. / 가고자 한다.)  
 나. 난 가의영 놀고정 ㅎ다. (나는 그 아이와 놀고 싶다. / 놀고자 한다.)  
 다. 는 바당이 가고정 ㅎ여? (너는 바다에 가고 싶니? / 가고자 하니?)

제주 방언 “-고저/구장/구저/고정/구정/구정(-고자)은 용언 어간에 붙어서 앞으로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현평효 외, 1995 : 45)라 정의하고 있다. 즉 화자의 의도나 바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1)에서 연결어미 ‘-고정’은 동사 ‘ㅎ다’와만 공기하며 이때의 의미는 ‘-고 싶다’ / ‘-고자 한다’이다. ‘-고정 ㅎ다’는 뒤에서 논의할 ‘-고프다’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바람이나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평서문에서는 당연히 주어와 1인칭이다.

여기서 주어 즉 화자가 하고 싶은 욕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즉 꼭 그렇게 하고 싶은 의도의 의미가 강하다. 제주 방언 ‘-고정 ㅎ다’를 중양어 ‘-고 싶다’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화자의 내적 욕구가 반영된다.

(1가)에서 ‘가고정 ㅎ다’를 ‘가고자 한다’로 해석한다면 이 문장은 화자의 희망보다는 ‘의도/목적’의 의미로 쓰였다. 물론 희망도 화자의 욕망 속에 포함된다. 욕구 정도를 표현하자면 ‘싶다’보다는 ‘-고자 한다’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1나)에서 ‘놀고정 ㅎ다’는 ‘놀고 싶다’는 화자의 단순한 바람의 심리 상태가 드러난다. (1다)는 화자가 주어의 의사를 묻는 문장이다. 즉 주어가 그렇게 하고 싶은지 여부를 묻고 있다. 따라서 ‘-고정 ㅎ다’는 주어가 1인칭이건 2인칭이건 주어의 바람이 내포되어 있다.

(1)에서 ‘-고정 ㅎ다’가 화자의 바람이나 의지의 의미가 있어서 평서문, 의문문에는 쓰이지만 명령문, 청유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이런 통사 기능은 ‘-고프다’와 동일하다. 연결어미 ‘-고정’의 선행 요소는 동사이며, 그 선행 동사의 동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제주 방언에서 연결어미 ‘-고저’와 호응하는 보조용언은 ‘ㅎ다’이다. 중양어 보조용언인 ‘싶다’가 바람의 의미일 때에는 연결어미 ‘-고’와 호응한다. 중양어에서 보조형용사 ‘싶다’는 대체로 화자의 바람을 의미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제주 방언에 쓰인 보조용언 ‘ㅎ다’에는 ‘바람/희망’의 의미가 없다. 다만 연결어미 ‘-고정’과 공기할 때에만 화자의 바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희망 보조형용사라

고 하는 ‘싶다’의 의미는 연결어미와 융합한 통사 구조인 ‘-고 싶다’나 ‘-고정 하다’일 때에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다음은 부정문에서의 쓰임을 보자.

- (2) 가. 난 바당이 안 가고정 하다.
- 나. 난 바당이 가고정 안 하다.
- 다. 난 바당이 가고정 하지 아녀다.

‘-고정 하다’의 통사 구조는 부정소 ‘아니’에 의한 단형·장형 부정문 모두 성립한다. (2가)처럼 부정소 ‘아니’가 본용언 앞에도 쓰이며, (2나)처럼 보조용언 ‘하다’ 앞에도 쓰인다. 부정소 ‘어디’의 위치가 본용언에 선·후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본용언 ‘가다’와 보조용언 ‘하다’의 분리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원래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분리성은 약한데 동사 ‘하다’의 경우에는 다르다. 여기서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의 의미이다.

- \* (3) 가. 난 바당이 못 가고정 하다.
- 나. 난 바당이 가고정 못 하다.
- 다. 난 바당이 가고정 하지 못하다.

(3)에서 부정소 ‘못’은 ‘타의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바람’을 뜻하는 ‘-고정 하다’와 공기할 수 없다.

- (4) 가. 난 얼굴이 곱닥하고정 하다.
- (나는 얼굴이 고와지고 싶다. / 고와지고자 한다.)
- 나. 난 청소하고정 하다. (나는 청소하고 싶다. / 청소하고자 한다.)
- 다. 난 일하고정 하다. (나는 일하고 싶다. / 일하고자 한다.)
- 라. \*난 마음이 좋고정 하다. (\*나는 마음이 좋고 싶다. / \*좋고자 한다.)

(4)에서 ‘-고정 하다’는 ‘하다’류 동사와 공기하는데, 연결어미 ‘-고정’의 선형 요소가 동사임을 뜻한다.

(4가)에서 ‘곱닥하다’(곱다)는 제주 방언에서 동작성을 띤 형용사여서 가능하다. (4라)에서는 형용사 ‘좋다’가 바람이나 의도의 보조용언과 공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1), (4)에서 보듯이 ‘-고정 ㅎ다’는 ‘-고 싶다’라는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지만 ‘-고자 하다’는 화자의 의지/의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제주 방언 ‘-고정 ㅎ다’는 화자의 바람의 정도에서 중앙어와 비교해 보면 그 정도가 강하게 느껴진다.

다음은 시제 형태소와 호응 관계를 보자.

- (5) 가. 난 바당이 가고정 ㅎ다.  
 나. 난 바당이 가고정 ㅎ다.  
 다. \*난 바당이 가고정 ㅎ켜.

(5)에서 보듯이 시제 형태소는 후행하는 보조용언 ‘ㅎ다’와 결합한다. 현재, 과거 시제와 결합하는데, 미래시제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5가)는 화자가 과거에 바다에 가고 싶어서 갔다는 바람이 이루어졌다. 또는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배어 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실현되었거나, 아니어서 문장이 성립한다.

(5나)는 화자의 바람이 현재 시점에서나 그 이후에 이루어지길 기대하므로 현재 시제와 결합되었다. (5다)에서 ‘-(으)크-’는 추측의 선어말어미로 쓰여서 주어 1인칭과 공기하지 못한다. 즉 ‘-고정 ㅎ다’에는 앞으로 실현되길 기대하는 화자의 바람이 있다.

- (6) 가. 나고져 식브녀 阿難일 브리신대 오샤 △ 나 내 나리 ㅁ이다. (월인천강지곡, 132)

- 나. 軒檻에서 양즈를 어루 브를가 식브도다. (두시언해 초간본 16 : 46)  
 다. 뉘 아니 좃좁고져 ㅎ리. (용비어천가, 78)  
 라. 病흔 사르미 病을 여희오져 ㅎ거든. (석보상절 9 : 32)

중세국어에서 연결어미 ‘-고져’는 희망이나 의도의 의미를 지닌다. 이 의미가 제주 방언에 그대로 남아 있다.

중세국어인 (6가)에서 ‘식브다’는 희망 보조형용사이다. 이것은 현대국어 ‘-고 싶다’로 변했는데, 제주 방언과 비교해 보면 보기 (1)에 쓰인 ‘고정 ㅎ다’와 연관지을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식브다’는 연결어미 ‘-고져’와 호응하는데 현대국어에서 ‘싶다’는 연결어미 ‘-고’와 공기한다. 즉 중세국어 연결어미 ‘-고져’나 제주 방언 연결어미 ‘-고정’은 통사 기능이 같으며, ‘식브다’가 쓰일 자리에 제주 방언에서는 ‘ㅎ다’가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보통 ‘ㅎ다’는 본동사로 쓰

이는데 연결어미 ‘-고자’와 공기할 때만 ‘싫다’의 대응어로 쓰였다고 여겨진다. 제주 방언에서는 연결어미 ‘-고’가 보조용언 ‘시프다’와 결합해서 ‘고프다’로 융합되어 ‘싫다’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고정 시프다’는 ‘-고정 ㅎ다’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6나)에서 보조용언 ‘식브다’는 연결어미 ‘-ㄴ가’와 공기하며, 추측의 의미로 쓰였다. 제주 방언 ‘-고정 ㅎ다’나 ‘-고프다’는 중세국어나 현대국어에 쓰이는 ‘추측’의 의미가 없다.

(6다, 라)에서 연결어미 ‘-고져’는 ‘의도/의지’의 의미로 쓰였다. 후행 동사로는 ‘ㅎ다’와만 공기한다. 이때 동사 ‘ㅎ다’는 화자의 의지가 실현된/될 당위성을 나타낸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제주 방언의 통사 구조를 비교해 보자.

(6가)에서 보듯이 ‘-고져 식브다’가 현대국어에서는 ‘-고 싶다’로 변화되어서 ‘식브다’의 의미·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제주 방언인 경우에는 ‘바람’의 의미를 지닌 연결어미 ‘-고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 채 ‘식브다’의 의미 기능이 ‘ㅎ다’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고져 식브다’와 ‘-고정 ㅎ다’는 의미가 동일하다.

(6다, 라)에서 연결어미 ‘-고져’가 의도의 의미로 쓰일 때에 두 형태를 비교해 보면 의미나 통사 기능 면에서는 동일하다.

중세국어 ‘-고져 ㅎ다’가 현대국어에서는 ‘-고자 하다’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중세국어 ‘-고져 ㅎ다’와 제주 방언 ‘-고정 ㅎ다’는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는 다르다. 즉 중세국어에는 화자의 의지/의도가 강하고, 제주 방언에는 화자의 바람이 강하다. 따라서 중세국어 연결어미 ‘-고져’와 제주 방언 연결어미 ‘-고정’을 비교해 보면 이 연결어미의 의미 자체가 ‘희망/바람’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중세국어 ‘식브다’와 제주 방언 ‘ㅎ다’의 대치관계를 보면 둘 다 동일한 보조형용사이다. 제주 방언에서 ‘식브다’ 자리에 ‘ㅎ다’가 쓰인 것은 ‘ㅎ다’가 ‘싫다’의 대응어로 쓰였으며 ‘-고프다’가 ‘식브다’와 동일한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는 중세국어에서 쓰였던 ‘-고져 식브다’와 ‘-고져 ㅎ다’ 형이 통사·의미 면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중앙어에서는 두 통사 구조의 의미가 분리되어서 쓰인다.

중세국어 ‘-고져 식브다’는 현대국어 ‘-고 싶다’ 형으로 쓰여서 화자의 바람을 뜻하는 원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 중세국어 ‘-고져 ㅎ다’ 형은 현대국어에서는 ‘-고자 하다’라는 화자의 의지/의도를 뜻하는 의미가 남아 있다.

### 3. '-고프다'의 통사·의미

제주 방언의 보조용언인 '-고프다'는 중앙어 '-고 싶다'에 해당하는 희망 보조형용사이다. 연결어미 '-고'와 보조형용사 '시프다'가 '-고프다' 형태로 융합되어서 한 단어처럼 쓰인다. 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띄어쓰기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구별이 안 된다. 이는 동사어간에 연결되는 의존형태소이며 '-고프다'가 단독으로 쓰일 수도 없지만 선행 동사어간과 결합되어야만 '희망/바람'의 의미가 있다.

제주 방언에서 실제 발화시에는 축약형인 '-고프다'가 주로 발화되는데, 노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쓰임이 빈번하다. 본형인 '-고 싶다'는 젊은 층과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에서 주로 쓰인다.

(7) 가. 난 집이 가고프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나. 가의영 놀고프지? (그 아이와 놀고 싶지?)

다. 우리 아이 보고팡 왔저. (우리 아이 보고 싶어서 왔다.)

(7)에서 보듯이 '-고프다'의 선행 요소는 동사이다. 중앙어에서는 '싶다'가 보조형용사로서의 문법 기능이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비해서 제주 방언에서는 형태적으로 보조용언으로서의 식별이 어렵다.

즉 '집이 가고 프다(집에 가고 싶다.)'라는 문장에서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했을 경우에는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는 '-고프다'가 단일어로 인식되면서 어미처럼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고프다'가 동사어간과 결합할 때만 화자의 바람이나 의지가 포함된다.

(7)에서 '보고팡'은 '보고프+양'으로 형태 분석이 된다. 제주 방언 '-양'은 연결어미이다. 여기서 '보고팡'이 또하나의 본동사로 쓰이고 있다. '왔저'에서 '오다' 역시 본동사이다.

(7)에서 평서문, 의문문일 때는 문장이 성립한다. 여기서 '-고프다'는 화자/주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바람이나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 '-고프다'가 주어의 희망을 표현하기 때문에 명령·청유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이는 중앙어와

1) 최학근(1992: 1722)를 보면 중앙어 '싶다' 형이 '시푸다'(충남, 전남, 전북 전지역), '시프다'(충남, 충북, 전북 전지역), '잡다'(전남, 전북 전지역), '푸다'(평남 전지역, 평북 용천 지역) 등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제주방언과 연관지을 수 있다.

같다.

(8) 가.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나. 너는 집에 가고 싶니?

다. 나는 너를 보고 싶어 왔다.

(7)과 (8)을 비교해 보면 (7)에서는 형태상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별이 안 된다. (8)은 형태상으로도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별이 가능하다. 중앙어 ‘-고 싶다’와 대응되는 제주 방언은 ‘-고프다’가 될 수 있으며 의미는 동일하다.

다음은 부정문에서의 쓰임을 보자.

(9) 가. 난 집이 안 가고프다.

나. \*난 집이 가고 안 프다.

다. 난 집이 가고프지 아녀다.

라. \*난 집이 못 가고프다.

마. \*난 집이 가고 못 프다.

바. \*난 집이 가고프지 못하다.

(9)를 (2)와 비교해 보면 ‘-고프다’ 형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분리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9가, 다)에서 보면 ‘-고프다’는 부정소 ‘아니’에 의한 단형·장형 부정문이 성립한다.

(9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부정소 개입이 안됨을 뜻하며, 동사어간 ‘가-’와 ‘-고프’의 형태 분리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9라~바)가 비문법적인 것은 부정소 ‘못’은 ‘타의 부정’, ‘불능’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고프다’와 공기하지 못한다.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 ‘의지 부정’의 의미로 쓰여서 성립한다.

(10) 가. 나는 집에 안 가고 싶다.

나. \*나는 집에 가고 안 싶다.

다. 나는 집에 가고 싶지 않다.

라. \*나는 집에 못 가고 싶다.

마. \*나는 집에 가고 못 싶다.

바. \*나는 집에 가고 싶지 못하다.

(10)은 중앙어인데 (9)에서 보듯이 제주 방언과 통사 기능이 같다. 즉 부정소 '아니'에 의한 단형·장형 부정문은 성립하는데, 부정소 '못'이 쓰인 부정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보조용언 '싶다'가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음은 시제 형태소와 호용 관계를 보자.

(11) 가. 난 질레서 놀고팠다. (나는 길에서 놀고 싶었다.)

나. 나는 (오늘) 놀고프다

다. \*난 놀고프켜. (\*나는 놀고 싶겠다.)

라. 가윈 집에서 놀고프켜. (그 아이는 집에서 놀고 싶겠다.)

(11)에서 '-고프다'는 현재 시점 이후에 발생할 것 바라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미래시제와 결합할 수 없다.

(11가)는 화자가 과거에 놀고 싶었는데,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놀지 못했거나, 아니면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놀았다는 뜻이다. 과거의 어떤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 형태소와 결합되었다.

(11나)는 '오늘'이라는 한정된 시점에서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즉 현재 이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한다. 시간 부사 '오늘'이 없어도 문장이 성립한다. 화자가 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도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화자의 바람이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11다)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화자의 의도나 추측을 뜻하는 형태소 '-(으)크-'와 '-고프'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5다)와 마찬가지로 주어가 1인칭일 때 추측의 형태소 '-(으)크-'가 쓰이지 못한다.

또한 화자의 바람이 드러난 문장 '놀고프-'와 추측의 형태소 '-(으)크-'가 함께 할 수 없다. 즉 주어가 1인칭일 때 '-고정 하다'나 '-고프다'가 '바람'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추측의 형태소 '-(으)크-'와 공기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11라)에서 '-(으)크-'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고 있어서 '-고프다'와 결합이 가능하다. 이때 주어는 3인칭이다. 화자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그 아이'는 아마 놀고 싶어할 것이라는 화자의 추측이 내포되어 있어서 문장이 성립한다. (11다)와 비교해 보면 주어의 인칭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12) 가. 난 얼굴이 곱닥하고프다. (나는 얼굴이 고와지고 싶다.)

나. \*방이 깨끗하고프다. (\*방이 깨끗하고 싶다.)

다. 난 말하고프다. (나는 말하고 싶다.)

라. 난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싶다.

(12가)에서 ‘-고프다’의 선행 요소는 형용사이다. 여기서 보조용언 ‘-고프다’는 화자의 바람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화자의 마음속에 자신의 얼굴이 ‘고운 상태’로 되고 싶은 욕구와 바람이 있다.

(12나)는 ‘하다’류 형용사여서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주어 ‘방’은 무생물이어서 화자의 바람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고프다’와 공기할 수 없다. 즉 ‘-고프다’는 유정명사가 주어나 화자일 때 서술어로 쓰인다.

(12다)는 화자가 1인칭이며 유정물이고, ‘말하다’가 ‘하다’류 동사여서 성립한다.

(12라)는 중양어인데 피동사 ‘지다’와 결합해서 문장이 성립한다. 이때에는 ‘그렇게 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12)에서 보듯이 보조용언 ‘-고프다’의 선행 요소로 동사는 제약이 없는데 비해서, 형용사는 제약이 있다. 즉 제주 방언이나 중양어는 ‘하다’류 형용사와는 공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12가)가 성립하는 것은 제주 방언 ‘곱닥하다’는 동작성을 띤 ‘하다’류 형용사여서 성립한다. 이는 중양어와 다른 점이다.

(13) 일이 잘 켈 상 시프다. (일이 잘 될 성 싶다. 제주도편 Ⅷ)

이는 의존명사 ‘상’과 보조형용사 ‘시프다’가 통합되었는데 중양어와 그 기능이 같다. 이때 ‘시프다’는 추측의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중양어에서 ‘(-고) 싶다’가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하다’와 교체 가능하다.

(14) 가. 그가 집에 갔는가 싶다.

나. 그가 집에 갔는가 한다.

(14)에서 동사 ‘하다’는 ‘생각하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 쓰인 ‘ㅎ다’와 중앙어 ‘하다’의 의미 기능은 다르다.

이때의 보조용언은 연결어미 선택에 통사적인 제약이 있으며 본용언과 공기하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제주 방언 ‘-고프다’는 주로 ‘희망’의 의미로 쓰이며, 연결어미 ‘-고’와만 공기한다. 중앙어에서 ‘싶다’는 ‘희망, 추측’ 등의 의미가 있으며 연결어미 ‘-면, -ㄴ까’ 등과도 공기한다.

중앙어에서 보조용언 ‘싶다’가 여러 연결어미와 공기하는 것은 형태상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주 방언은 ‘-고프다’가 본용언과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사어간에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중앙어에 비해서 연결어미의 선택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고프다’는 주로 화자의 희망을 드러내는 심리 상태가 반영되기 때문에 주어는 1인칭이다. ‘추측’의 의미일 때에는 주어가 2·3인칭도 가능하다. 이때에도 어떤 사건에 대한 추측의 주체는 역시 화자인 1인칭이 된다. 따라서 ‘-고프다’가 ‘바람’의 의미일 때나 ‘추측’의 의미일 때나 주어는 1인칭이라 할 수 있다.

### 3. 결 론

제주 방언에 쓰이는 보조용언 ‘-고정 ㅎ다’와 ‘-고프다’는 중앙어 ‘싶다’에 대응된다. 여기서 동사 ‘ㅎ다’가 연결어미 ‘-고정’과 공기할 때에만 화자의 ‘바람’이나 ‘의도’의 의미가 있다. 중앙어 보조용언 ‘싶다’는 연결어미 ‘-고’와 공기하는데 제주 방언에서는 이 통사 구조를 볼 수 없다. 다만 연결어미 ‘-고’와 ‘싶다’의 축약형인 ‘-고프다’가 빈번하게 쓰인다.

대부분의 보조용언은 본용언으로서 주 기능이 있는데 제주 방언에서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고프다’는 본용언의 통사 기능은 없다. ‘-고프다’의 형태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본용언의 기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 희망 보조형용사로 쓰이는 ‘-고프다’와 ‘-고정 다’는 화자의 바람 정도에 차이가 있다. ‘-고프다’에는 불확실한 희망의 의미가 있다면, ‘-고정 ㅎ다’에는 확실한 믿음/희망의 의미가 있다. 또한 ‘-고정 다’의 통사 구조는 중세국어의 통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중앙어 ‘-

고 싶다’ 형은 쓰이지 않고 ‘-고 시프다’인 경우 축약형 ‘-고프다’의 쓰임이 보편적이다.

지금도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은 ‘-고정ㅎ다’와 ‘-고프다’를 임의로 교체해서 사용한다. 빈도수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고정ㅎ다’를 발화하며, 젊을수록 ‘-고프다’를 발화한다.

## 참 고 문 헌

- 고영근(1987), 표준중세국어문법, 탑출판사.  
문순덕(1999), 제주 방언의 부정 표현 연구,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이기동(1986), 조동사의 의미 분석,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최학근(1992),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최현배(1975), 우리말본, 정음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방언자료집 I ~ X>.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현평효 외(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